

비판사회학 소식지

평등 비판사회학회 Critical Sociological Association of Korea

권두언

‘공정(公定)’에 포박된 공정(公正) 담론



■ 임운택 (부회장·편집위원장/계명대)

바야흐로 우리는 공정 과잉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청년문제는 물론이고, 성장과 혁신으로 대변되는 경제문제, 심지어는 생태문제까지 공정이라는 수식어를 붙이지 않으면 흡사 정치와 정책의 지향점이 온전하게 보이지 않을 만큼 공정은 우리사회의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주지하듯 이는 우리사회에서 삶의 조건이 공정해서가 아닙니다. 반대로 갈등을 채울 수 없는 ‘탄탈로스의 형벌’처럼 우리사회는 공정에 무척 목말라 있습니다. 노동, 젠더, 소득, 자산에서의 차별과 격차의 원인은 물론이고, 심지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공평하다는 믿음을 주어야 할 개인의 능력마저 ‘후천적 면역결핍’이라도 되듯 ‘부모찬스’에 따라 달라진다고 믿는 현실이고 보니 공정이라는 이슈는 접근방식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심정적으로 이해되는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공정(公正)문제가 공정(公定)에 포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공정문제는 사회의 규범과 가치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은 설익은 각종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소위 ‘87년체제’에서 되풀이되어온 사회의제의 사법화 혹은 과잉 정치화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이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미래의 희망을 기약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음면 계속)

물론 '87년 체제'의 성립은 1990년대 이전 비합법·반합법의 틀 속에 간혀 있던 민주화 운동과 진보적 사회개혁운동을 제도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민주노조운동과 시민사회운동은 소위 진보적 학술운동과 결합하여 문민정부와 민주정부의 출범과 개혁정치의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의 공고화 과정에서 개혁 세력의 한계가 두드러지기 시작했으며, 사회과학의 이론과 실천의 부조화도 가시화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10여 년 전 87년 체제 논쟁으로 촉발되었습니다. 그러나 87년 체제 논쟁은 결과적으로는 개혁 동력이 소진되었음에도 신자유주의 공세를 막아내기 위한 방편으로 범민주 세력의 재편을 통해 소위 신자유주의 헤게모니 블록 내부에서 정권 교체를 이루려는 내부담론으로 소진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경제와사회> 130호에서는 특집기획으로 “한국사회 진보개혁운동에 대한 성찰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선언적 진보담론과 정치의 지평을 넘어 향후 진보정치의 전망을 위해 87체제 이후 30여 년에 걸친 진보적 사회 개혁운동에 대한 네 편의 평가와 성찰을 다루었습니다. 이 중 백승욱의 『되돌아보는 1991년: “87년정세의 자유주의적 포섭의 시도”와 잊힌 퇴조의 출발점』과 손우정의 『지체된 전환: 87년체제 진보정치운동의 성찰과 과제』는 지난 5월 28일 개최된 18회 콜로키움에서 발표되었고, 비록 온라인이지만 40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하여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대소식지 8면 후기 참조). 발표자인 백승욱 선생님은 승리의 역사로 인지되는 87년 체제가 실제로는 위기의 역사이며, 이 역사의 미싱링크인 1991년에 대한 검토를 통해 87년 체제의 한계를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손우정 선생님은 촛불 시위와 대통령 탄핵이후에도 정치적으로 주변화되고 있는 진보정치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안체제의 목표를 구성하는 헤게모니 프로젝트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올 한해 비평사회학회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다양한 학술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식인들이 할 일은 더 많은 설명들을 제공함으로써 정치적 논의지형을 확대하는 데 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끝)



19회 콜로키움: 2021년 8월 23일(예정)

■ 1부(13:00~14:00). 조은 감독과의 토크: <사당동 더하기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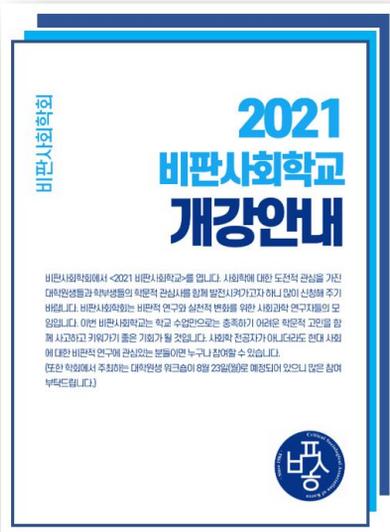
- 참가 신청자에 한해 <사당동 더하기 33> 다큐를 볼 수 있는 링크 제공
- 영상사회학의 가능성, 글쓰기와 영상텍스트의 차이, 다큐작업에 관한 이야기

■ 2부(14:30~16:30). 대학원생 연구발표

※ 상세한 일정과 신청방법은 향후 이메일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비판사회학교

이번 여름, <비판사회학교>가 개강합니다!



비판사회학회에서 <2021 비판사회학교>를 엽니다. 사회학에 대한 도전적 관심을 가진 대학원생들과 학부생들의 학문적 관심사를 함께 발전시켜가고자 하니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판사회학회는 비판적 연구와 실천적 변화를 위한 사회과학 연구자들의 모임입니다. 이번 비판사회학교는 학교 수업만으로는 충족하기 어려운 학문적 고민을 함께 사고하고 키워가기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사회학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현대 사회에 대한 비판적 연구에 관심있는 분들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개설과목

3개 과목 개설 / 각 과목 당 5회 강좌 운영 (강좌는 zoom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

- ① 비판사회이론: 경제학 비판
- ② 세계화와 사회변동
- ③ 질적연구방법: 비판으로서의 해석 (선착순 30명으로 수강생 제한)

운영기간

7월 31일 ~ 8월 20일

수강료

과목당 5만원 (수강신청은 과목별로 가능하며, 과목 내 강좌별 신청은 불가함)

신청기간

6월 11일 오전 9시 ~ 각 과목별 첫 강좌 시작 전일 18시

신청방법

구글폼으로 신청서 접수 [신청서 링크](#)

학회계좌로 수강료 납부 후 신청이 완료됨. 신청완료 후 이메일 개별 통지 (계좌: 국민은행 533301-01-096442 / 비판사회학회)

문의

sansahak1984@gmail.com / 02-3148-6220

■ <비판사회학교> 강의 일정

과목명	주제	강사	일정
질적연구방법: 비판으로서의 해석	1강. 질적연구방법의 패러다임	추지현 (서울대 사회학과)	7월 31일 (토) 13:00-14:50
	2강. 질적연구의 준비와 과정	김재형 (방통대 문화교양학과)	7월 31일 (토) 15:00-16:50
	3강. 생애사 연구와 텍스트 분석	이희영 (대구대 사회학과)	7월 31일 (토) 17:00-18:50
	4강. 이야기와 체험의 재구성	이희영 (대구대 사회학과)	8월 1일 (일) 13:00-14:50
	5강. 질적연구와 글쓰기	육주원 (경북대 사회학과)	8월 1일 (일) 15:00-16:50
비판사회이론: 경제학 비판	1강. 칼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 비판과 사회적인 것	백승욱 (중앙대 사회학과)	8월 9일 (월) 15:00-17:50
	2강. 에밀 뒤르케임의 비판사회학과 사회적인 것, 그 의의와 한계	김주환 (동아대 기초교양대학)	8월 10일 (화) 15:00-17:50
	3강. 막스 베버의 '경제와 사회'에서 사회적인 것의 쟁점	김성윤 (문화사회연구소)	8월 11일 (수) 15:00-17:50
	4강. 미셸 푸코의 비판: 공리주의, 자유주의, 고전경제학	조은주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8월 12일 (목) 15:00-17:50
	5강. 릭 볼탕스키의 자본주의 비판과 새로운 자본주의 정신	김주호 (경상국립대 사회학과)	8월 13일 (금) 15:00-17:50
세계화와 사회변동	1강. 사회변동의 이론적 조망: 세계체계분석과 역사적 자본주의	백승욱 (중앙대 사회학과)	8월 16일 (월) 15:00-17:50
	2강. 고전적 자유주의에서 케인스주의적 자유주의로	구분우 (중앙대 사회학과)	8월 17일 (화) 15:00-17:50
	3강. 케인스주의의 위기와 신자유주의적 전환	박찬종 (광운대 인제니움학부)	8월 18일 (수) 15:00-17:50
	4강. 신자유주의적 전환과 금융세계화	윤종희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8월 19일 (목) 15:00-17:50
	5강. 한국 자본주의의 변동: 발전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	김명수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8월 20일 (금) 15:00-17:50

상세 강의계획서 링크

가을학술대회 기획

비판의 재구성과 비판사회학



■ 조은주 (연구위원장 / 명지대)

올해 비판사회학회 연구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비판사회학이란 대체 무엇인가'라는 진부하고도 새삼스러운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이런 질문이 불필요한 시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비판의 주체, 비판의 형식, 비판의 준거가 모두 변화하는 시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피해와 피해가 경합하고 고통과 고통이 경쟁하는 사이, 비판적 지식은 쉽게 냉소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어쩔 수 없이, 비판이란 과연 무엇이며 비판사회학이란 대체 무엇이라는 육중하고도 멧쩍은 질문을 들고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2021년 가을학술대회 대주제는 '비판의 재구성'입니다. 거창하면서도 범박한 주제이지만, 이 주제와 더불어 올해 비판사회학회는 여러 차원에서 원점에 서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연구재단의 일정에 얽매이지 않고 가을학술대회를 최대한 긴 호흡으로 준비해보고자 올해만큼은 학술대회지원사업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비판의 재구성'이라는 대주제 아래 세 개의 기획세션 준비팀을 구성하였고, 각 준비팀은 2월초부터 지금까지 스무 차례에 걸쳐 열띤 토론과 세미나를 진행하는 중입니다. 가을학술대회 준비 과정을 비판사회학회 연구자들의 집합적인 공동작업의 장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모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학술운동'의 시대에 시작된 한국산업사회연구회가 한국산업사회학회로 이름을 바꾸고 다시 비판사회학회로 전환된 후 14년이 더 흘렀습니다. 비판사회학이나 비판사회학회를 논하기 위해 '학술운동'의 시절을 소환하는 것은 너무 먼 이야기가 되었고, 비판사회학회 운영위원의 절대다수는 그 이후 세대의 연구자들입니다. '비판의 재구성'이라는 대주제 아래 논의를 거듭할 때마다 이 시대 젊은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여러 겹의 과제와 곤경을 더 깊이 공유하고 확인하며 절감하게 됩니다. 지금 마주하는 여러 차원의 곤경에 응답하고 반응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한국 사회에서 유용하고도 필요한 비판이란 어떤 것인가를 줄기차게 함께 물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면 계속)

해마다 비판사회학회 가을학술대회는 사회학의 여러 분야를 망라하는 여러 세션에서 셀 수 없이 많은 논문이 발표되는 큰 행사였습니다. 올해 비판사회학회는 그런 성대함을 잠시 뒤로 하고, 기획세션의 수를 대폭 줄여 학술대회에 참석하는 분들이 최대한 한 자리에 모여 깊이 있는 토론의 장을 만들 수 있게끔 준비해보려고 합니다. 또한 가을학술대회로 가는 여정에서 집담회 성격의 ‘열린세미나’를 몇 차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발표자와 토론자가 시간에 쫓겨 준비한 발표와 토론을 황급히 마무리하는 자리가 되지 않게끔, 문제의식을 담은 ‘발제’와 참석자 모두가 함께하는 충분한 토론의 시간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생산의 정치〉로 잘 알려진 마이클 부라보이(Michael Burawoy)는 2004년 미국사회학회장 취임연설에서 사회학의 네 가지 이념형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가 제시한 사회학의 유명한 네 가지 이념형이 “누구를 위한 사회학인가”, “무엇을 위한 사회학인가”라는 두 개의 질문을 출발점으로 했음을 새삼 상기해보게 됩니다. 지금의 비판사회학회는 누구를 청중으로 하며 어떤 지식을 생산하고자 하는지에 대해, 올해 준비한 여러 자리에서 비판사회학회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묻고 답하길 기대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비판의 모습에 대해 함께 묻고 논쟁하며, 이 시대에 필요한 비판의 재구성을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모색해가길 기대하겠습니다. (끝)

〈비판의 재구성〉 1차 ‘열린세미나’ 일정

일시: 6월 11일 (금) 오전 10:30

2021년 비판사회학회는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가을학술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가을학술대회 대주제는 〈비판의 재구성〉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비판’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출발점으로, 사회학에서의 비판의 위상을 진단하고 재구성하는 동시에 ‘비판사회학’의 의미와 성격을 전면적으로 재논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 〈비판의 재구성〉이라는 주제에 맞추어 가을학술대회를 준비하는 세 개의 주제별 준비팀을 구성하였고, 각 팀에서는 격주 토론과 발표 등을 통해 문제의식을 활발히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론 과정에서 보다 열린 형태의 세미나가 필요할 경우 느슨하고 개방적인 비정기 세미나를 〈열린세미나〉라는 명칭으로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 자리를 아래와 같이 마련했습니다. 스승인 부르디외의 비판사회학을 신랄하게 비판한 볼탕스키의 문제의식을 한국 사회의 맥락에서 재사유하고, 이를 통해 탈진실(post-truth) 시대의 비판의 위치와 상태에 대해 논하고자 합니다. 통상적인 학술발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발제와 충분한 토론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 사회: 조은주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부교수)

■ 발제 1: 김주호 (경상대 사회학과 조교수)

비판사회학에서 비판의 사회학으로: 볼탕스키의 ‘비판의 사회학’

■ 발제 2 : 이경환 (USC 사회학과 박사과정)

탈진실(post-truth) 시대의 비판

※ Zoom 회의실 주소

회의 ID: 829 7045 87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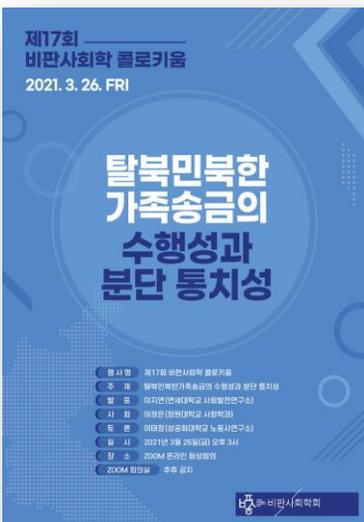
암호: 654697

Zoom 회의실 링크

17회 콜로키움 후기 (2021년 3월 26일)

‘분단체제론’에서 ‘분단통치성 이론’으로의 전환

■ 전원근 (운영위원 / 제주대)



이번 제17회 비판사회학회 콜로키움은 2020년 김진균학술상을 수상한 이지연 박사(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의 논문 “탈북민의 북한 가족 송금의 수행성과 분단 통치성”을 주제로 이루어졌다.

이 연구는 탈북민들의 가족 송금 행위를 관계론적 관점에서 개인들의 수행성 및 주체성의 형성에 가지는 의미와, 초국경 연결망으로서 남북한 사회에서 가지는 효과들에 주목했다. 여기서 분단이라는 것은 더 이상 “외부의 정적인 체제”가 아닌, “그 자체가 일상생활에서 역동적인 권력의 작용”으로 이해된다.

통치성으로서 분단은 지도상의 경계나 물리적 장벽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 행위와 정체성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탈북민의 송금과 관련된 일련의 연결망들 속에서 양가적 감정, 관계의 유지, 몸과 돈의 이동성, 정치사회적 낙인, 중개인과 보위부, 북한 가족 구성원의 생존과 명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포착된다.

최근의 냉전분단 연구는 과거 사실관계의 확인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남겨놓았고, 현재의 시점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로 이어지고 있다. 다시 말해 냉전분단의 억압적인 측면에서 더 나아가 그것이 우리의 일상적 삶과 사회적 관계들에 가지는 효과와 ‘생산적인’ 측면에 대한 분석이다. 이러한 경향은 현대 사회과학의 섬세한 개념들을 적극적으로 한반도의 냉전분단 연구에 끌어들이으로써 비판의 재구성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콜로키움에서는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토론자인 이태정 회원은 꼼꼼하게 정리해 온 토론문을 중심으로,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탈북민’이라는 용어를 선택한 맥락, 젠더와 초국경 이주의 관점에서 연구의 확장가능성, 그리고 코로나 이후 이산가족들의 위기에 대해 질문과 코멘트를 하였다. 이에 대해 발표자인 이지연 박사는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는 남과 북에 동시에 존재하고자 하는 수행성과 주체성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포괄적 사회적 의미를 담고 있는 ‘탈북민’을 사용하고자 한 맥락이 있음을 밝혔다. 또한 송금이라는 행위는 여성들이 비합법적 틈새들을 통해 가족의 생존을 책임져왔던 맥락들, 그리고 ‘탈북민’뿐만 아니라 다양한 초국경 이동성의 젠더화와 ‘초국경 엄마되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젠더와 이주라는 문제의식들과 맞닿아 있다는 이태정 회원의 코멘트에 공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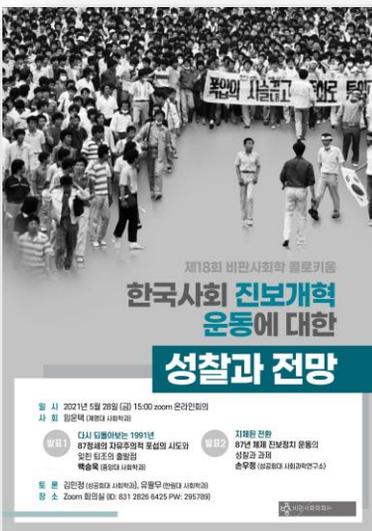
(다음편 계속)

객석에서도 많은 질문과 코멘트가 이어졌는데, 사회자인 이정은 회원을 비롯하여 백승욱 회장과 임운택, 조은주 회원은 특히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분단 통치성의 개념에 대해 많은 관심을 드러냈다. 이는 우리 학회가 올해 중요한 아젠다로 설정하고 있는 비판의 재구성이라는 관점과도 큰 관련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발표자인 이지연 박사는 기존에 ‘분단체제론’이 드러내주었던 측면들과 그 유용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남한과 북한이라는 이분법을 넘어 행위하고 있는 주체들과 연결망들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탈북민과 탈북민의 송금행위가 사회에서 발화될 때 그들이 중국이나 태국 난민수용소 등 남북이라는 이분법적 공간을 벗어난 경험들이 소거되고, 결국 남한과 북한의 갈등이나 ‘통일’의 담론 속에서만 의미를 갖게 된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래서 분단을 체제가 아닌 ‘통치성의 문제로 본다’는 것은 우리의 사유와 시각을 오랜 기간 한정시켜왔던 이분법적 구도를 넘어서는 태도의 전환을 의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가 ‘비판의 재구성’이라는 아젠다에 직면하여 탈분단의 문제가 단순히 남과 북의 동일로서만 상상되는 것이 아니라, 앞서의 이분법적 프레임들 자체의 해체를 동반한 새로운 사유와 상상들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이번 콜로키움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끝)

18회 콜로키움 후기 (2021년 5월 28일)

‘87년 체제(론)’에 대한 두 가지 비판적 시각

■ 김도균 (운영위원 / 제주대)



지난 5월 28일 한국사회 진보개혁 운동에 대한 성찰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18번째 콜로키움이 개최되었다. 백승욱은 “되돌아본 1991년 : 87정세의 자유주의적 포섭의 시도와 잊힌 퇴조의 출발점”이라는 주제로 1987년 민주화에서 1991년까지의 정세가 한국 사회의 변동에서 갖는 함의를 조망하였다. 손우정은 “지체된 전환: 87년 체제 진보정치운동의 성찰과 과제”라는 주제로 87년 이후의 진보정치운동을 체제론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모색했다.

(다음면 계속)

먼저 백승옥은 87년 민주화에서 91년까지의 정세를 한국 사회의 자유주의 기획의 위기와 수선 과정 속에 위치시킴으로써 87년과 91년의 의미를 재구성하고자 한다. 87년 체제 담론은 87년의 경험을 특권화하고 이후의 과정을 87년이 제기한 미완의 개혁과제들을 완수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비판하면서, 이와 달리 87년에서 91년으로 이어지는 정세를 통치계급의 자유주의적 전환을 위한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91년 정세를 거치면서 노동운동은 전노협 체제에서 민주노총 체제로 전환되고, 정치운동은 합법 공간에서의 진보정당 건설로 귀결되는데 이러한 전환들은 통치계급이 주도한 자유주의적 제도실천의 효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87년 체제라는 것이 존재한다기 보다는 “87년 정세의 자유주의적 포섭”이 존재할 뿐이며, 91년은 이러한 포섭의 지연된 실패로서 이해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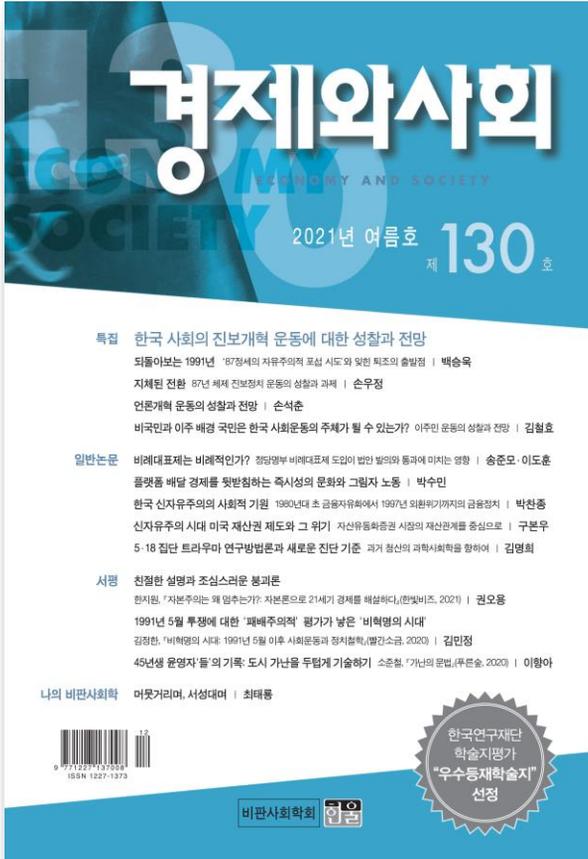
백승옥이 87년 체제 담론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과 달리 손우정은 진보정치운동의 과제를 87년 체제의 틀에서 고찰한다. 현재 한국 사회를 87년 체제의 연장선으로 보면서 87년 체제 전환의 필요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진보정치운동이 대항적 가치를 상실하고 정치적으로 주변화된 과정을 분석한다. 87년 민주화 이후를 세 시기로 구분하고, 각 시기마다 진보정치운동을 운동정치, 이데올로기와 관계 구조가 형성된 시기(①), 합법 진보정당 운동이 활성화된 시기(②), 지배 계급이 불안정해지지만 진보정치운동은 더욱 무력해지는 시기(③)로 규정하고 있다. 첫 번째 전환(①→②)에서는 진보세력이 정치세력화에 어느 정도 성공하지만 동시에 분당 사태로 이어지는 과정을, 두 번째 전환(②→③)에서는 2008년 촛불로 진보정치의 기회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진보세력 내에서 내분과 갈등이 심화되면서 오히려 대항적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토론을 맡은 유팔무는 87년의 유산이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다는 손우정의 주장에는 공감하지만 그것이 체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지적한다. 87년이 체제 수준의 변화는 아니었는데, 왜냐하면 재벌 독점 해체와 같은 구조적 변화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민주노동당 창당 과정에서 사회민주주의 이념으로 강령통합과 담론통합을 추구했지만 결국 통합에 실패하고 분당사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반면 김민정은 한국 사회에서 87년은 획기적인 전환점이었음을 부인하기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87년 체제론을 승리사관으로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비판한다. 또한 91년 패배의 경험이 있었지만 그 이후 이러한 패배를 반전시키려는 진보정치운동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91년 이후 정치적으로는 개혁주의 정당의 등장, 경제적으로는 노동조합의 제도화가 이루어졌으며, 개혁주의 정치 흐름에 부합하는 독자적인 노동운동을 고민하는 것이 과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콜로키움은 87년 이후 사회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사회운동의 과제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성찰해 볼 수 있는 자리였다. 백승옥은 정세분석을 주체역량의 문제로 대체하는 진보진영의 한계를 지적하고, 통치계급의 자유주의적 기획이라는 문제의식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정세분석에 근거한 대안 도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손우정은 진보정치세력은 대안담론을 대중정치 차원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 한계라고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탈이념이 아닌 이념의 재구성과 진보정치운동의 새로운 생태계 구축이 요구된다고 강조한다. 콜로키움 자체가 동일한 시대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생각들이 교차하는 장으로서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학회가 ‘비판적 분석과 정치적 대안’의 구심점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끝)

<경제와사회> 130호(6월 발간) 목차



<경제와 사회> 링크

■ 특집: 한국사회의 진보개혁 운동에 대한 성찰과 전망

되돌아 보는 1991년

백승욱

지체된 전환: 87년 체제 진보정치 운동의 성찰과 과제

손우정

언론개혁 운동의 성찰과 전망

손석춘

비국민과 이주 배경 국민은 한국 사회운동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김철호

■ 일반논문

'비례대표제'는 비례적인가?

송준모 · 이도훈

플랫폼 배달 경제를 뒷받침하는 즉시성의 문화와 그림자노동

박수민

한국 신자유주의의 사회적 기원

박찬중

신자유주의 시대 미국 재산권 제도와 그 위기

구분우

5.18 집단 트라우마 연구방법론과 새로운 진단 기준

김명희

■ 서평

친절한 설명과 조심스러운 봉괴론

한지원, 『자본주의는 왜 멈추는가?: 자본론으로 21세기 경제를 해설하다』 (한빛비즈, 2021)

권우용

1991년 5월 투쟁에 대한 '파배주의적' 평가가 낳은 '비혁명의 시대'

김정현, 『비혁명의 시대: 1991년 5월 이후 사회운동과 정치철학』 (별간소금, 2020)

김민정

45년생 '운영자'들의 기록: 도시 가난을 두렵게 기술하기

소준철, 『가난의 문법』 (푸른숲, 2020)

이향아

■ 나의 비판사회학

머뭇거리며, 서성대며

최태룡

『경제와 사회』 130호는 DBpia를 통해 6월 중순부터 원문공개됩니다.

※ 『경제와 사회』는 회비납부 회원들에 한하여 원문을 보다 편리하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논문원문이 포함된 이메일 저널레터로 우선 송부됩니다.

회원시간소개



팬데믹 이후 중국의 길을 묻다

성균관대 성균중국연구소, 2021년 4월, 328쪽

박우 외 (한성대 기초교양학부)

전 세계인이 힘겹게 감당하는 고난과 혼란의 팬데믹 시기에 중국은 새삼 세계적 주목을 끌고 있다. 코로나19 증상이 처음 보고된 장소가 중국의 도시라서만은 아니다. 중국식 방역 방식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즉, 권위주의적 정치 체제가 방역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둘러싼 것이다. 이 쟁점은 세계적으로 반중감정이 확산되는 가운데 불거져 한층 더 논란을 부채질했다. 중국 문제는 각국의 발전전략과 연관된 것이기에 내부 정치 논쟁의 쏠이개로 작용한다. 유럽 여러 나라에서도 점점 더 분열적 쟁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보고도 있거니와 우리 사회도 예외가 아님을 실감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현실에서 중국의 방역 방식을 깊이 있게 이해하자고 제안하는 것이 이 책을 펴내는 취지이다. 이에 비춰 우리 사회 또한 편견 없는 시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링크](#)



다시 촛불이 묻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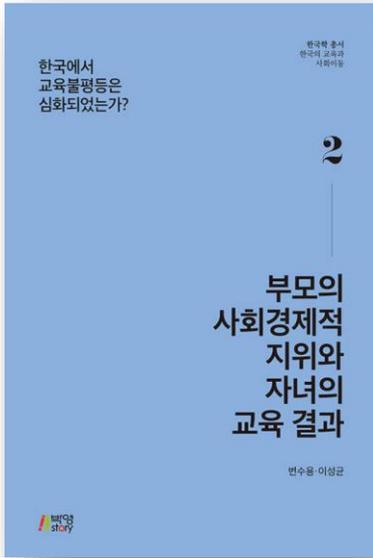
동녘, 2021년 3월, 456쪽

이병천 (강원대 명예교수), 조돈문 (가톨릭대 명예교수) 외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향에서 전환적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첫째는 전환적 개혁의 중심가치에 인간답고 시민다운 삶, 젠더평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 필요(needs)충족과 적극적 역량증진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인간답고 시민다운 삶 성적으로 평등한 삶의 기본적 필요충족과 역량증진에 대한 보장은 기후회복력을 가질 수 있는 정의로운 생태사회로의 전환 속에서 생태적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탈탄소 사회경제로의 전환이라는 근본적 제약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재난불평등의 극복과 생태사회로의 전환에서 기본적인 필요원칙은 취약자의 필요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셋째는 어떤 구체적 제도개혁을 통해 이 사회생태적 전환이 가능할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목차링크](#)

회원신간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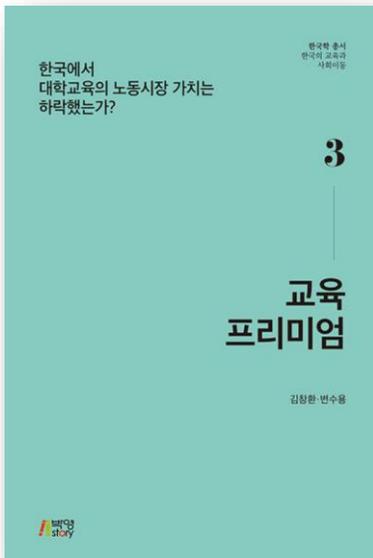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녀의 교육결과

박영스토리, 2021년 3월, 184쪽

이성균 (울산대 사회복지학) 외

이 책은 지난 반세기 한국 사회에서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교육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계층 이동에 있어 교육의 역할에 대한 사회학적 이론을 검토하고, 한국 사회의 교육기회 확대 과정과 교육제도 변화를 고찰하였다. 교육과 사회계층이동 조사, 인구총조사, 국제학생학업성취도평가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에서의 교육 불평등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특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교육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지난 반세기 동안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 체계적으로 다루고자 하였다.

목차링크



교육 프리미엄

박영스토리, 2021년 3월, 240쪽

김창환 (University of Kansas 사회학과) 외

이 책은 개인의 교육성취가 임금과 직업 등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교육과 노동시장에 대한 국내외 이론을 검토하고 한국사회의 교육과 임금·직업 등 노동시장 성취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다양한 사회조사원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사회에서 학력과 노동시장의 연관성, 특히 고학력층의 노동시장 성과를 분석하고 연령집단 혹은 성별로 비교하였다.

목차링크

회원신간소개



교육, 젠더와 사회이동

박영스토리, 2021년 3월, 184쪽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김창환 (University of Kansas 사회학과)

이 책은 한국에서 이루어진 교육제도의 변화가 교육기회와 관련하여 남성과 여성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분석하고, 그러한 변화가 남성과 여성의 사회이동과 임금에 미친 효과를 분석한다. 최근 한국에서는 여성의 고등교육 진학이 남성을 능가하는 '젠더 역전'이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의 대학진학률과는 달리, 노동시장에서의 남녀 임금불평등은 크게 악화되지 않았다. 임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변수를 포함한 분석에서 20대 대졸자 여성은 대졸자 남성에게 비해서 17% 정도 적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결혼이나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이전에 이미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시기에 채용과 업무 할당 과정에서 존재하는 여성에 대한 차별의 결과 때문이라는 점을 논의한다.

목차링크



범죄학과 사회이론

두번째테제, 2021년 3월, 279쪽

데이비드 갈런드, 리처스 스파크스 편 /

추지현 (서울대 사회학과), 김재형 (한국방통대 문화교양학과) 외 번역

범죄학은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통념 이상으로 사회이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미 여러 학문 분야에서 범죄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여러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흐름들은 사회적 현상과 사회이론의 분석틀을 통해 범죄학을 새롭게 재정립하고 있다. 국내에서 그다지 소개되어 있지 않았던 논의들에 주목한 역자들은 관련 주제들을 광범위하게 다루는 이 책을 번역 출간하였다. 각 저자들의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번역에 나선 역자들의 연구 영역 역시 젠더, 법, 역사, 사회이론, 사회정책, 정치사상, 노동 등 한국 사회에서 환기되는 '범죄학'의 범주에 국한되지 않는다.

목차링크

회원시간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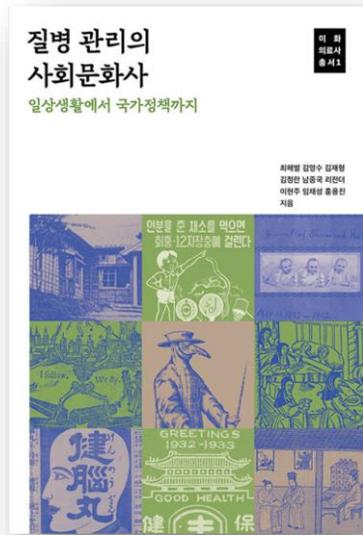
모두를 위한 노동 교과서

오월의봄, 2021년 4월, 380쪽

김철식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장귀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노동권연구소) 외

노동권의 위상이 여전히 낮고, 반노동적 인식이 팽배하고, 이렇다 할 노동교육, 노동인권교육이 부재한 오늘날의 한국 상황 속에서 노동을 둘러싼 왜곡된 관점을 바꾸고 노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노동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연구자, 활동가, 법률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알아야 바꿀 수 있고, 알아야 되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의 노동자성이라는 평이한 요건이 높은 산이자 벽처럼 되어버린 지금의 현실과 그 때문에 더욱 심화된 노동의 불안정에 착목해 이 책을 구성했다.

목차링크



질병관리의 사회문화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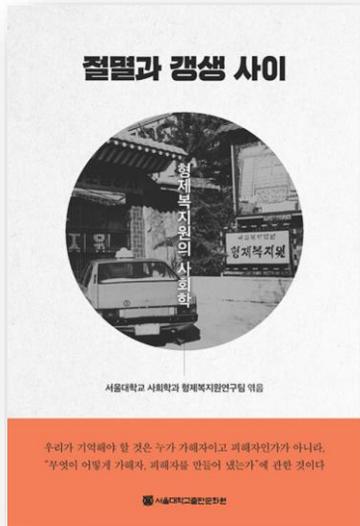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2021년 4월, 360쪽

김재형 (한국방송통신대학 문화교양학과) 외

이 책에서는 근대 이전부터 존재했던 흑사병, 한센병 등의 전염병과 상한 및 중기 등 내외과적 질환, 정신질환, 여성 질환, 불임 등에 대해 인류가 어떻게 대응해왔는지 살펴보고, 의학과 건강 이슈에서 소외되어온 아동, 여성, 노동자, 전후 패전국 귀환자들의 보건·위생 문제까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다양한 시대와 지역의 개별 연구들을 비교분석한다. 독자들은 이 책을 읽으며 시대별·국가별로 질병에 대한 인식 및 대응이 어떻게 달랐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분투한 과거의 체험과 교훈을 통해 이상적인 질병 관리 모델의 해법 역시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목차링크

회원신간소개



절멸과 갱생 사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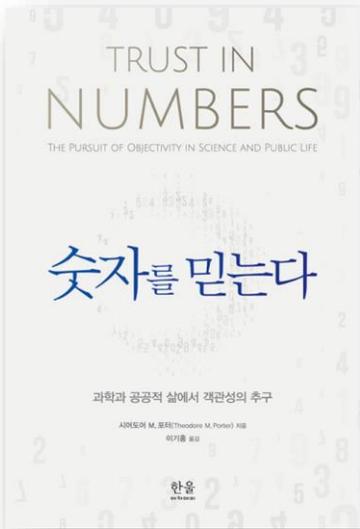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21년 5월, 364쪽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형제복지원연구팀

1987년 불거진 형제복지원 사건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생을 중심으로 결성된 형제복지원연구팀이 4년간 조사, 연구, 토론한 결과물이다. 형제복지원 사건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형제복지원연구팀은, 형제복지원을 하나의 단일한 실체로 이해하는 대신, 형제복지원이라는 거대한 시설이 지속적으로 작동하게 한 구성요소와 그와 관계된 사회집단을 하나하나 추적한다.

경찰과 사법당국의 관행, 민간 복지시설의 사업 방식, '자활'을 내건 각종 사업의 흐름, 수용소의 독특한 공간 구조, 차별과 혐오를 내재한 지역 언론과 시민사회가 가진 서로 다른 결의 역사를 차례로 되짚어나간다. 연구팀은 이러한 요소들이 어떻게 한국 현대사의 물길 속에 합류하여 '형제복지원'이라는 결론으로 귀결되었는지, 그 과정을 해명해보고자 했다.

[목차링크](#)



숫자를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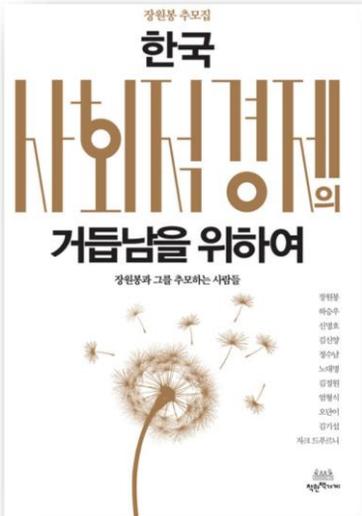
한울, 2021년 5월, 512쪽

시어도어 M. 포터 / 이기홍 (강원대학교 사회학과) 번역

숫자 사용의 확대와 심화는 근대 자본주의 사회 일반의 특징이었다. 그럼에도 '숫자'의 사회적 생산과 사용에 관한 학술적 관심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이 책은 이런 학술 현실에 대한 하나의 도전이다. 저자인 포터는 숫자가 객관적인 용어로 사물을 표현하는 방식이며 수량적 전문지식의 확산이 '기계적 객관성'의 추구에서 기원하는 것임을 지적한다. 공공적 활동에서 전문성을 표상하고 몰주관성을 증거하는 숫자의 권위는 과학과 공학의 성장에 의존해 자리 잡았지만, 수량화의 공공적 역할은 과학적 및 기술적 발전으로 환원할 수 없는 사회적 및 정치적 발전을 반영한다.

[목차링크](#)

회원신간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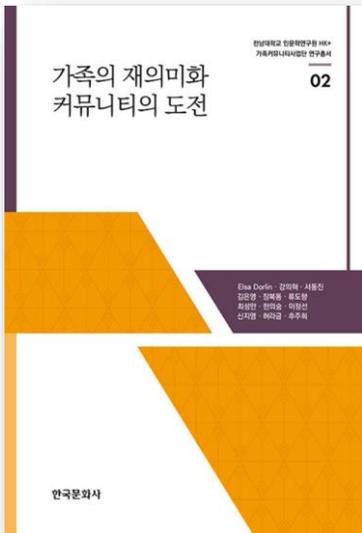
한국 사회적 경제의 거듭남을 위하여

착한책가게, 2021년 4월, 440쪽

김정원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외

이 책은 장원봉 선생의 추모집이다. 지금 한국의 사회적경제는 故장원봉 선생이 우려했던 지점에서 그리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하기에 그가 제시했던 실천 방향과 과제는 지금도 그대로 현재진행형의 내용으로 남아있다. 특히 아래로부터의 관심과 참여로 뒷받침되지 못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논의는 사회적기업육성법과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을 둘러싸고 당시에 그가 했던 우려와 고민들의 연장선에 위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생전에 그와 함께하고 교류했던 사회적경제의 여러 연구자 및 활동가들이 그의 생각과 고민을 되짚으며 현재의 시점에서 극복방안을 모색하고 실천과제를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목차링크



가족의 재의미화 커뮤니티의 도전

한국문화사, 2021년 4월, 448쪽

서동진 (계원대학교 융합예술학과), 추주희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외

이 책은 전남대학교 HK+가족커뮤니티사업단이 2018년 제1회 국내학술대회 “가족패러다임의 대전환과 인문학적 지평”, 2019년 제1회 국제학술대회 “동아시아 가족주의와 가족의 경계들”, 2019년 공동학술대회 “근대 동아시아와 가족공동체”, 그리고 HK+교원 세미나에서 발표된 원고들을 기반으로 삼아 기획된 것이다. 이 책은 전통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아시아 가족구조변동의 흐름을 따라 가족담론의 경계와 균열지점들을 비판적으로 추적하고, 열린가족과 미래공동체의 새로운 가능성을 인문학의 관점에서 성찰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 책은 그간 사회과학이 주도해온 가족 담론에 인문학적 의제와 상상력을 융합하여 그 외연을 확장함으로써, 새로운 관점으로 가족에 접근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목차링크

회원동정

- 김철식 회원: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 임용 (6월 1일자)

신입회원

(3월~5월)

- 정회원

김인수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승철 (서울대 인류학과) 신희영 (Wright State University) 손우정 (성공회대 사회과학연구소) 손석춘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배성민 (경북대 철학과) 김경아 (성공회대 사회과학연구소)	소준철 (한국학중앙연구원) 윤병훈 (서울대 사회학과) 이도훈 (연세대 사회학과) 최선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성철 (일본 사이타마대)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	---
- 준회원

김기홍 (서강대) 조진우 (천안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특별회비납부

(3월~5월)

- 이종구 (성공회대 명예교수): 50만원
- 최태룡 (경상국립대 명예교수): 50만원
- 나간채 (전남대 명예교수): 50만원
- 심상완 (창원대 명예교수): 50만원

회원현황

- 총회원 249명 (5월 24일 현재): 정회원 241명 / 기관회원 2 / 준회원 6명

회원가입 및 회비납부안내

- 정회원: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이상의 학력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경제와 사회> 투고자격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정회원 회비: 개인의 상황과 능력에 따라 아래의 회비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1) 연 24만원 (월2만원)	(2) 연12만원 (월1만원)	(3) 연6만원 (비전임/정년퇴임교수/박사과정)
(4) 평생회원 특별회비 50만원 이상 (정년퇴임회원)		
- 준회원: 석사과정 대학원생
 - 준회원 회비: 연2만원
- 회비납부계좌: 국민은행 533301-01-096442 (예금주: 비평사회학회)

운영위원회 활동 보고

(3월~5월)

- 3월 3일 '사회운동과 비판의 재구성' 세션준비팀(조은주, 임운택, 추지현, 홍성태) 세미나
- 3월 4일 '비판의 재구성과 이론' 세션준비팀(조은주, 김주환, 박치현, 이정연) 세미나
- 3월 6일 '비판의 재구성과 비판사회학' 세션준비팀(조은주, 김성운, 김주호, 육주원) 세미나
- 3월 17일 '사회운동과 비판의 재구성' 세션준비팀 세미나
- 3월 20일 '비판의 재구성과 비판사회학' 세션준비팀 세미나
- 3월 24일 운영소위원회 3차 회의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장, 연구위원장, 운영간사)
- 3월 26일 17회 콜로키움: '탈북민 북한 가족송금의 수행성과 분단 통치성'
- 3월 26일 운영위원회 2차 회의 (운영위원 전원)
- 4월 9일 '비판의 재구성과 이론' 세션준비팀 세미나
- 4월 14일 '사회운동과 비판의 재구성' 세션준비팀 세미나
- 4월 17일 '비판의 재구성과 비판사회학' 세션준비팀 세미나
- 4월 28일 '사회운동과 비판의 재구성' 세션준비팀 세미나
- 4월 28일 운영소위원회 4차 회의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장, 연구위원장, 운영간사)
- 4월 30일 <비판사회학교> '질적방법론: 비판으로서의 해석' 강사진 회의
- 5월 1일 '비판의 재구성과 비판사회학' 세션준비팀 세미나
- 5월 7일 <비판사회학교> '비판사회이론: 경제학 비판' 강사진 회의
- 5월 12일 '사회운동과 비판의 재구성' 세션준비팀 세미나
- 5월 13일 <비판사회학교> '질적방법론: 비판으로서의 해석' 강사진 회의
- 5월 14일 '비판의 재구성과 이론' 세션준비팀 세미나
- 5월 15일 '비판의 재구성과 비판사회학' 세션준비팀 세미나
- 5월 17일 <비판사회학교> '세계화와 사회변동' 강사진 회의
- 5월 21일 <비판사회학교> 과목별 책임자 및 운영진 회의
- 5월 24일 운영소위원회 5차 회의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장, 연구위원장, 운영간사)
- 5월 28일 18회 콜로키움: '한국사회 진보개혁운동에 대한 성찰과 전망'
- 5월 28일 운영위원회 3차 회의 (운영위원 전원)

2021년 임원진

- 운영위원회

회장 백승욱(중앙대)	부회장 임운택(계명대)	부회장 최인이(충남대)
운영위원장 박찬중(광운대)	연구위원장 조은주(명지대)	연구위원 김도균(제주대)
연구위원 김명수(서울대)	연구위원 김재형(방통대)	연구위원 김주호(경상대)
연구위원 김주환(동아대)	연구위원 백영경(제주대)	연구위원 이정연(서울여대)
연구위원 이정은(창원대)	연구위원 전원근(제주대)	연구위원 추지현(서울대)
연구위원 황선재(충남대)	정책위원 박지훈(중앙대)	정책위원 김성윤(문화사회연구소)
정책위원 신희주(가톨릭대)	정책위원 이태정(성공회대)	정책위원 홍성태(고려대)
정책위원 육주원(경북대)	대외협력위원 박치현(대구대)	대외협력위원 원재연(연세대)
대외협력위원 조혁진(노동연구원)	정책위원 최종숙(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대외협력위원 이철(노동권익센터)	운영간사 박동열(중앙대)	

-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임운택(계명대)	편집부위원장 지주형(경남대)	편집위원 김민정(성공회대)
편집위원 박명준(노동연구원)	편집위원 윤상철(한신대)	편집위원 이상철(성공회대)
편집위원 장귀연(노동권연구소)	편집위원 정태석(전북대)	편집위원 주은우(중앙대)
편집위원 최현(제주대)	편집위원 구분우(중앙대)	편집위원 박해남(원광대)
편집위원 이향아(경희대)	편집위원 하대청(광주과기원)	편집위원 김명희(경상대)
편집위원 홍덕화(충북대)	편집위원 윤상우(동아대)	편집위원 이소훈(경북대)
편집위원 정재원(국민대)	편집위원 권오용(충남대)	편집위원 채오병(국민대)
재외편집위원 구해근(Univ. of Hawaii at Manoa)	재외편집위원 권학준(리쓰메이칸대)	
재외편집위원 박현옥(York University)	편집간사 이예진(서울대)	

- 이사회

〈당연직 이사〉	이희영(대구대)	백승욱(중앙대)	임운택(계명대)
	최인이(충남대)	박찬중(광운대)	조은주(명지대)
〈선출직 이사〉	이영희(가톨릭대)	오유석(성공회대)	윤상철(한신대)
	조효래(창원대)	이주희(이화여대)	추지현(서울대)
	정영철(서강대)	이항우(충북대)	최현(제주대)
	지주형(경남대)	신경아(한림대)	정철희(전북대)
	윤충로(한중연)	김철식(한국고용노동교육원)	
〈감사〉	공제욱(상지대)	조형제(울산대)	